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핵심: 로타리의 역할



차차기총재(2020-21) 유창희
(서울회현RC)

필자는 지난 9월 25 ~ 28일 동안 일본의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세계사회과학포럼(WSSF)에 한국 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여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안보”였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란 비교적 최근에 사회과학계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 이 세상을 살기 좋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우리 후세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 보다도 인간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예방하거나 또는 불가피해서 해를 당했을 때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안보를 해칠 수 있는 요소는 전쟁 말고도 많다. 지진, 해일, 산불, 전염병,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기아, 빈곤, 환경파괴, 각종 범죄, 정치적 폭력, 인권경시, 여성차별 등 인간이 책임져야 할 요소들도 많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자들과 각국 정부,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 포럼에 참석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법론 중에 인간안보의 해법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분권적 방식(decentralization)에서 찾자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나 또는 국제기구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전문가를 보낸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사실상 위험예방이나 피해 최소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가장 낮은 단계의 지방정부에 아예 “인간안보용”으로 연초에 배정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행히 별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간 해에는 이를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인적자원도 재난이나 위험이 발생한 후에 파견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안보 요원”을 가장 낮은 지방정부 단위에 평소에 배속하라는 것이다. 이 요원들이 각종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응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계도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하나 제기된 문제점으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지금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이를 인간생활에 좋은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하도록 인성교육과 도덕,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컴퓨터 해킹이나 악성맷글을 확산하는 행위가 점점 늘고 있는 오늘날의 현황을 감안 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일도 적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를 정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운동 또는 지역사회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활용시대에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고 있는 국가나 계층을 위해 그 격차를 줄여 주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비정부 민간단체(NGO)들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안보를 민간단체에 맡길 때 세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인간애(人間愛)의 발현이다.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인간안보 과업에 임하는 자세는 행정적인 의무감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데에 비해 민간단체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둘째는 자발성(自發性)이다. 인간안보의 일익을 맡겨 주면 민간단체 요원들은 24시간 자기 일



처럼 혹시 주변에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나 또는 인간안보적인 면에서 이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없나를 예의 주시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인간생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성(經濟性)이다. 대부분의 민간단체 요원들은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일한다기 보다 자기의 재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봉사를 위해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우리 로타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았다. 로타리는 봉사단체이고 비정부기관이다. 로타리 강령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사회봉사를 통해 국제적 이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제로타리 전체의 차원에서는 소아마비 박멸을 위해 힘써 왔고 이제 그 목표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찌보면 인간안보라는 숭고한 인류의 목표를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민간단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말한 민간단체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예가 바로 로타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애, 자발성, 경제성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간안보를 염두에 두고 국제로타리는 장기적 비전 설정의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소아마비박멸이 완성되면 그 다음의 사업은 무엇이 좋을지? 지진, 해일, 산불, 전염병,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기아, 빈곤, 환경파괴, 각종 범죄, 정치적 폭력, 인권경시, 여성차별 등 수 많은 인간안보의 위험요소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사업목표를 삼으면 좋을지? 목표가 세워 졌을 때 지금까지 했듯이 로타리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하는 것이 좋을지? 또한 한국 로타리 특유의 독립적 사업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국제로타리의 범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좋을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 해 볼 문제라고 본다. 🍷